

EU 원유쿼터 확대와 그 영향 *

허 덕

1. 머리말

2007년 유제품 수급 불균형, 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 쿼터량 확대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2008년 4월부터 쿼터 총량의 2%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행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게 되었다.

2007년 EU의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은 과거 가격변동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호주의 한발 영향에 의한 공급 부족, 중국·인도의 소비 증가 등 수급상 커다란 변화로 인해 2007년 들어 세계적으로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여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EU의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가격이 상승하자 EU의 유제품 가격도 여름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후 가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5월 주요 유제품의 도매가격은 2007년 초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EU의 우유 및 유제품 수급정책은 2007년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다. 원유 쿼터제도의 재검토가 그 중 하나이다. 2007년 유제품 수급 불균형, 가격 상승 등으로 2007년 가을 이후 쿼터량 확대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2008년 4월부터 쿼터 총량의 2%를 확대키로 하였다. 또 하나의 변화는 건전성평가(Health Check)로 불리는 EU의 각종 정책들에 대해 건강도 내지 기여도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재검토하여 '2009년 이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유쿼터 제도도 건전성평가에 의해 현재 재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 본 내용은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08년 7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여기에서는 최근 큰 변동을 나타내는 EU의 유제품 가격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유제품 수출시장의 약 40% 점유율을 차지하는 EU에서의 원유쿼터 확대가 역내의 우유 및 유제품 수급과 국제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원유쿼터 확대 논의와 그 배경

2008년 4월부터 원유쿼터 2% 확대 제안

EU의 원유쿼터 제도

19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까지 EU에서는 유제품 개입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원유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이른바 ‘버터의 산’이라고 불리는 유제품 재고의 과잉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정책의 하나로 1984년부터 국가별로 원유의 생산범위(쿼터)를 정하여 할당수량을 초과하는 가맹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 제도는 그 후 몇 차례 재검토를 거쳐, 2003년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2006/07년도 EU 전체 쿼터물량은 1억 3,685만 톤이었다. 하지만 EU-25개국 중 7개국에서 77만 4,148톤이 쿼터량을 초과하여 생산되었고, 이에 수반된 과징금은 2억 2,094만 유로(3,668억원: 1유로 = 1,660원) 정도였다. 2006/07년도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과징금 단가는 1톤당 285.4 유로(약 47만원)였다. 나머지 18개국에서는 생산량이 쿼터를 밑돌았으며, 사용되지 않은 쿼터(미사용 쿼터)의 합계는 약 270만 톤 정도였다.

2007/08년도 최종적인 원유 생산량과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2008년 가을에 확정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예측에 의하면 EU-25 개국 중 8개국에서 총 107만 5천 톤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미사용 쿼터의 합계는 17개국에서 약 308만 톤으로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미사용 쿼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며(78만 톤), 스웨덴(40만 톤), 프랑스(35만 톤), 헝가리(33만 톤), 폴란드(30만 톤) 순이다. 이들 5개국의 합계는 올해 EU 전체 미사용 쿼터의 70%를 차지할 것이다.

EU의 원유 수급 및 유제품 가격 동향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2007년의 우유 및 유제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2008년 4월부터 원유쿼터를 2% 확대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7년의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쿼터 확대는 실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까지 EU에서는 원유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유제품 재고의 과잉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원유의 생산범위를 정하여 할당 수량을 초과하는 가맹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EU의 유제품 가격은 2007년 이전까지 보합,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2007년 들어 크게 상승하였다.

EU의 유제품 가격은 2007년 이전까지는 보합 내지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2007년 들어 크게 상승하였다. 버터 및 탈지분유는 역내 생산자 유가의 간접적인 하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매입제도가 있으며, 개입가격은 2004년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버터 및 탈지분유의 역내 가격은 개입·매입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데 탈지분유가격은 2007년 봄부터, 버터가격은 다소 늦은 여름 이후 급등하였다. 근래 안정된 추세를 보여 왔던 치즈가격도 버터와 마찬가지로 여름 이후 급등하였다.

표 1 EU의 우유 및 유제품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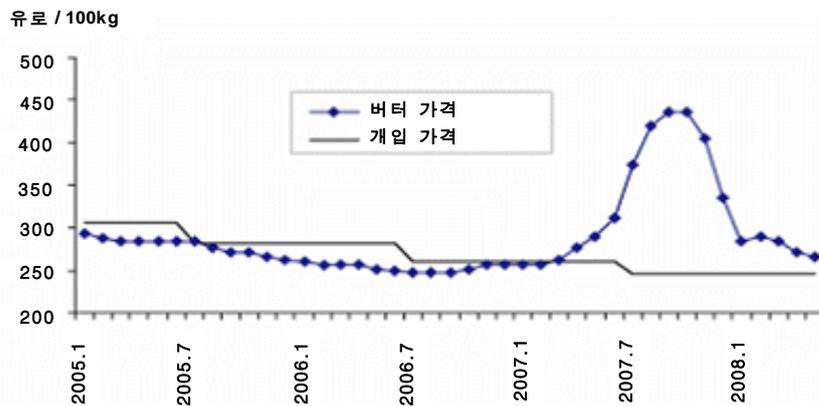
단위: 천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원유	생산량	148,390.7	148,926.7	147,457.9	147,153.1
	출하량	132,010.8	133,487.2	132,721.8	132,861.6
버터	생산량	2,174.1	2,194.9	2,088.6	2,115.6
	수입량	92.5	80.5	92.1	85.0
	수출량	348.2	338.4	251.7	179.6
	소비량	1,980.7	1,967.9	1,996.9	2,078.0
탈지분유	생산량	962.0	962.3	861.4	935.3
	수입량	30.1	9.7	21.2	27.5
	수출량	276.4	190.2	85.1	169.6
	소비량	844.7	846.6	797.5	793.2
치즈	생산량	8,473.9	8,641.3	8,827.4	8,964.2
	수입량	106.0	94.0	100.8	100.8
	수출량	582.7	551.2	586.3	621.5
	소비량	7,997.1	8,184.1	8,341.9	8,443.4

주: 2006년까지는 EU-25, 2007년은 EU-27의 수치

자료: 유럽위원회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 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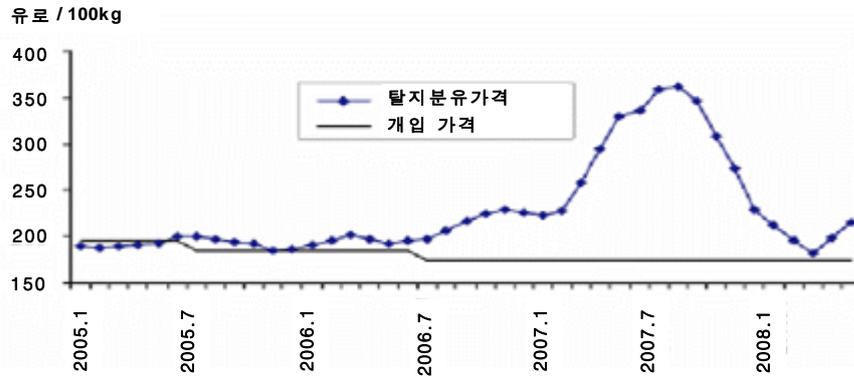
그림 1 버터의 EU 역내 가격 동향



주: 네델란드 브랜드버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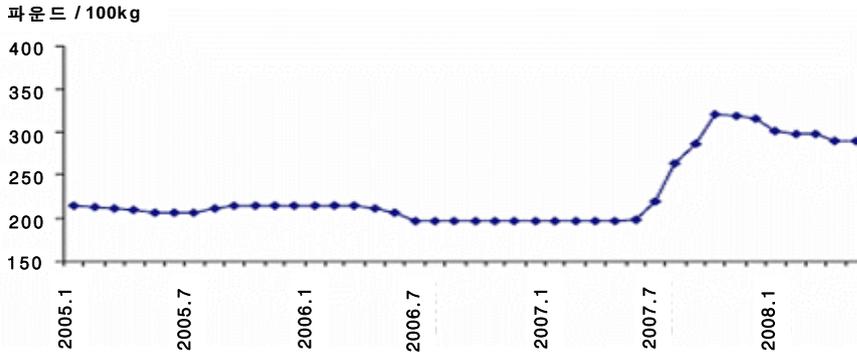
자료: ZMP

그림 2 탈지분유의 EU 역내 가격 동향



주: 스프레이식 탈지분유의 독일 공장 출하 가격
 자료: ZMP

그림 3 치즈의 EU 역내 가격 동향



주: 체다치즈의 영국 국내 참고 인도 가격
 자료: ZMP

종전의 가격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출 보조금 동향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제품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EU산 유제품과의 가격차가 축소되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지급하던 보조금을 탈지분유는 2006년 6월부터, 전지분유는 2007년 1월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6월에는 버터에 대해 지금까지 100kg당 50유로(83,000원)를 보조하던 것을 중단하였으며, 치즈의 수출 보조금도 모든 종류에 대해 중단하였다.

EU의 원유생산은 쿼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원유가 하락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축소되어 쿼터범위를 채우지 못하는 가맹국이 많아졌다. 따라서 원유 생산량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의 원유생산 감소폭이 작아 유제품 가격 급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EU

수출보조금 동향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제품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EU산 유제품과의 가격차가 축소되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지급하던 보조금이 중단되었다.

의 유제품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유제품 수급 동향에 좌우된 부분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양우 안정적 수요 전망에 따라 쿼터물량 확대 폭을 2%로 제한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원유쿼터를 2%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고, 2008년 3월 17일 농업각료이사회에서 2008년 4월부터 원유쿼터 확대가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2007년에는 EU 가맹국 중 11개국에서 2008년 4월부터 쿼터물량을 0.5% 확대한다는 것 외에 다른 확대 예정은 없었다. 그러던 중 EU 집행위원회가 2007년 12월에 원유쿼터를 2%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향후 2014년까지 치즈 소비를 중심으로 원유수요가 80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적으로도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 정도의 생산량 증가는 충분히 소비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을 통한 전망에 의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2008년 3월 17일 농업각료이사회에서 2008년 4월부터 원유 쿼터 확대가 정식으로 결정되어, 새롭게 284만 톤의 쿼터가 추가되었다.

유제품 가격은 원유쿼터 확대 논의가 개시되던 시점에는 호조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농업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시점에는 다소 안정되고 있었다. 때문에 EU 중 원유 생산량 1위인 독일이 그 같은 결정에 반대하였다. 원유가격이 2007년 여름을 피크로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해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원유생산 증가가 산악지역 등 조건불리 지역의 낙농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유 생산량 2위인 프랑스도 이에 동조하여 기권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쿼터물량의 확대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200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이후 2007년까지 볼 수 있었던 유제품 수요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로 2008년 4월부터 쿼터량 확대를 단행되었다.

건전성평가(200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중간 재검토)

건전성평가(Health Check)란 2003년 개혁을 거쳐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동농업정책(CAP)정책수단을 평가·검증하여 2009년 이후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전성평가(Health Check)란 2003년 개혁을 거쳐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동농업정책(CAP) 정책수단을 평가·검증하여 2009년 이후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CAP제도의 '직접지불제도', '시장정책', '농촌개발제도' 등이 재검토 대상인데, 원유쿼터 제도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원유쿼터 제도는 최근 어려운 곡물수급 사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휴경 의무의 잠정적 폐지 등과 더불어 시장정책 재검토의 대상으로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건전성평가(Health Check) 논의 동향으로는 지금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재검토 방향 제시(2007년 11월 20일), 농업각료이사회와 관계자 등의 의견을 감안한 구체적인 재검토 방향(규칙안)의 제시(2008년 5월 20일) 등이 진행되었으며, 2009년부터 필요한 변경 시책의 실시를 위해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건전성평가의 재검토 방향 제시(2007년 11월)

2007년 들어 EU 집행위원회 피셔보엘 위원(농업·농촌개발 담당)은 건전성평가(Health Check)프로그램을 통한 원유쿼터 제도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각종 강연에서 쿼터 제도를 2015년 4월 이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연착륙 수단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해 왔다. 2007년 11월에 공표된 재검토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의 발언을 답습한 내용이였다.

건전성평가의 원유쿼터 제도 재검토 가운데 주된 검토 방향은 연착륙 수단이었다. 위원회는 연착륙 수단으로써 ‘원유 쿼터범위의 완만한 확대’가 적절하다는 견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제안하도록 하였다. 원유쿼터 제도 재검토에 있어서 검토의 초점은, 1) 언제부터, 2) 몇 년간 확대할 것이며, 3) 확대의 수준을 몇 %로 할 것인지 등이였다.

또한, 원유쿼터 제도의 폐지에 따라 특정 지역(특히 산악지역)의 최저수준의 생산 유지조차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어, 연착륙 수단 이외의 다른 해결 수단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건전성평가의 원유쿼터 제도 재검토 가운데 주된 검토 방향은 연착륙 수단이었는 데, 위원회는 연착륙 수단으로써 ‘원유쿼터범위의 완만한 확대’가 적절하다는 견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건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재검토 방향(규칙안) 제시(2008년 5월)

2008년 5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건전성평가(Health Check) 프로그램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의 구체적인 재검토안을 공표하였다. 이 제안은 2007년 11월에 제시된 재검토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가맹국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규칙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5월 25일의 비공식 농업 각료이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11월 또는 12월에 있을 농업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원유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검토 방향이 제시되었다. 재검토 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을 보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9년 4월부터 실시한다는 안, ‘몇 년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14년 3월까지 5년간 실시기로 한다는 안, ‘확대 수준을 몇 %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년 1%씩 증량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중기적으로 EU 역내에서 치즈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EU 역외에서도 경제성장이나 인구 증가에 따라 유제품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원유쿼터 제도의 원활한 폐지를 위해 새로운 원유쿼터 확대율 상향조정과 원유쿼터 제도의 과징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 검토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 유럽의회와 농업각료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빠르면 2012년 4월부터 건전성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재검토된 원유쿼터 확대율과 검토의 대상은 되지 않았던 과징금 인하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5.20.EU 집행위원회는 건전성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인 재검토안을 공표하였는데, 원유쿼터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시하고, 매년 1%씩 증량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3. 원유쿼터 확대가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¹⁾

연착륙 수단에 의한 이행 기간의 영향

2008.4.1. EU 집행위원회는 '원유쿼터 제도 폐지에 따른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폐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각 2개씩의 연착륙, 경착륙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2008년 4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경제연구기관(Institute d'Economie Industrielle)에 위탁하여 실시한 '원유쿼터 제도 폐지에 따른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expiry of the EU milk quota system)'를 공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폐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원유쿼터를 서서히 확대하는 2개의 연착륙 수단으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설정하였으며, 어느 시점까지 현행 원유쿼터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2개의 경착륙 수단으로 시나리오 (3)과 (4)를 설정하는 등, 모두 4개의 수단을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유 쿼터를 '연 1%씩 확대'
시나리오 (2)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유 쿼터를 '연 2%씩 확대'
시나리오 (3) 2009년에 원유 쿼터 제도를 폐지
시나리오 (4) 2014년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2015년에 원유쿼터 제도 폐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가 건전성평가 프로그램에서 원유쿼터를 재검토하는 안으로 2008년 5월에 '연 1%씩 확대'하는 연착륙 수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보다 시작연도가 1년 늦은 2009년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본 시나리오 (1)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에 이용한 2개의 연착륙 수단이 이행기간에 있어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원유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원유쿼터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씩 확대하는 경우와 연간 2%씩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8년의 원유 생산량을 100으로 할 때 2014년의 생산량은 각각 103.9와 104.9가 된다. 연간 비율로 바꾸어 보면, 각각 0.7%와 0.8%인데, 원유쿼터 확대율이 2배가 되어도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원유쿼터를 폐지하는 2015년의 전년대비 증감률 차이는 각각 1.3% 증가, 0.6% 증가로 폐지시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2%씩 확대하는 시나리오 쪽이 적다.

1) 이하에서 소개되는 분석결과는 모두 Institute d'Economie Industrielle,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expiry of the EU milk quota system"에 의한 것임.

그림 4 연간 1%씩 확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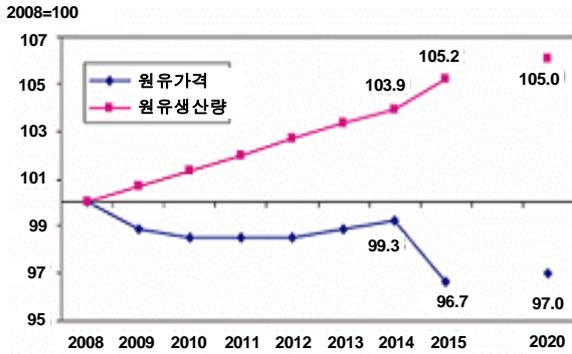


그림 5 연간 2%씩 확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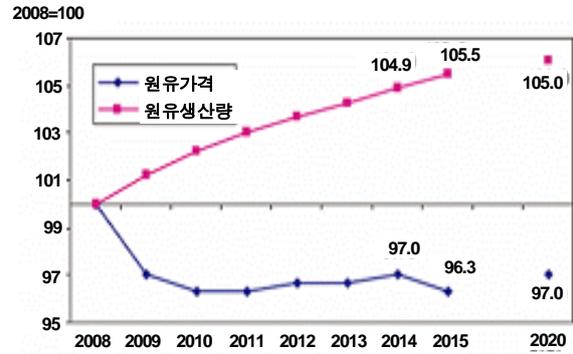


표 2 연착륙 수단이 원유 생산량,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

구 분		연간 1%씩 확대	연간 2%씩 확대
원유생산	2009~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0.7%	+0.8%
	원유쿼터폐지 초년(201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차	+1.3%	+0.6%
원유가격	원유쿼터폐지까지의 가격변동 추세	안정적 추이	
	원유쿼터폐지 초년(201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차	-2.6%	-0.7%

원유 가격에 대해 연간 1%씩 확대하는 시나리오와 연간 2%씩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2008년 원유가격을 100으로 할 때 2014년 가격은 각각 99.3과 97.0이 된다. 연간 1%씩 확대하는 경우 2014년까지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비해, 연간 2%씩 확대하는 경우에는 쿼터물량 확대 초년도인 2009년도에 97.0으로 낮아지고 이후부터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쿼터를 폐지하는 2015년의 전년대비 증감률 차이는 각각 2.6% 감소, 0.7% 감소로 폐지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2%씩 확대의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2009~2014년까지 원유 생산 및 가격에 대해 연간 1%, 2%씩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원유생산은 각각 0.7%, 0.8%씩 증가하며, 원유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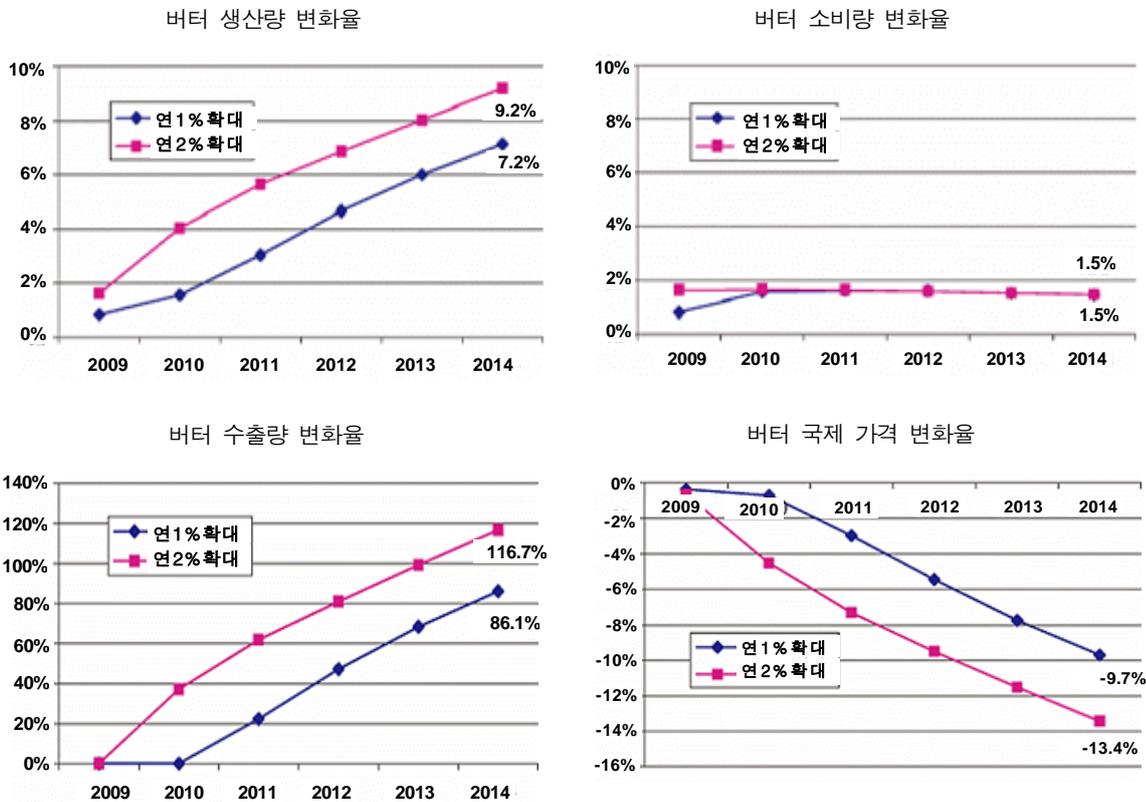
유제품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원유쿼터를 확대하게 되면 모든 유제품에 대해 생산량 증가로 연결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치즈에 비해 버터나 탈지분유에서 크다. 원유쿼터 확대에 따른 원유생산 증가는 앞으로도 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치즈보다 수요가 주춤한 버터나 탈지분유 생산을 증가시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EU는 현재 세계 유제품 수출시장에서 버터, 치즈의 약 40%, 탈지분유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지역이며, 새로운 수출량 증가는 수출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 저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버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유 쿼터를 연간 1%씩 확대하는 경우와 연간 2%씩 확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원유쿼터가 앞으로 일정하게 변동할 경우에 예상되는 수치를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버터생산량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크게 증가하고, 2014년에는 각각 107.2와 109.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수요량은 거의 유지하여 왔으므로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각각 186.1과 216.7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은 각각 90.3과 86.6으로 나타나, 원유쿼터 확대가 버터 국제가격을 약 10% 정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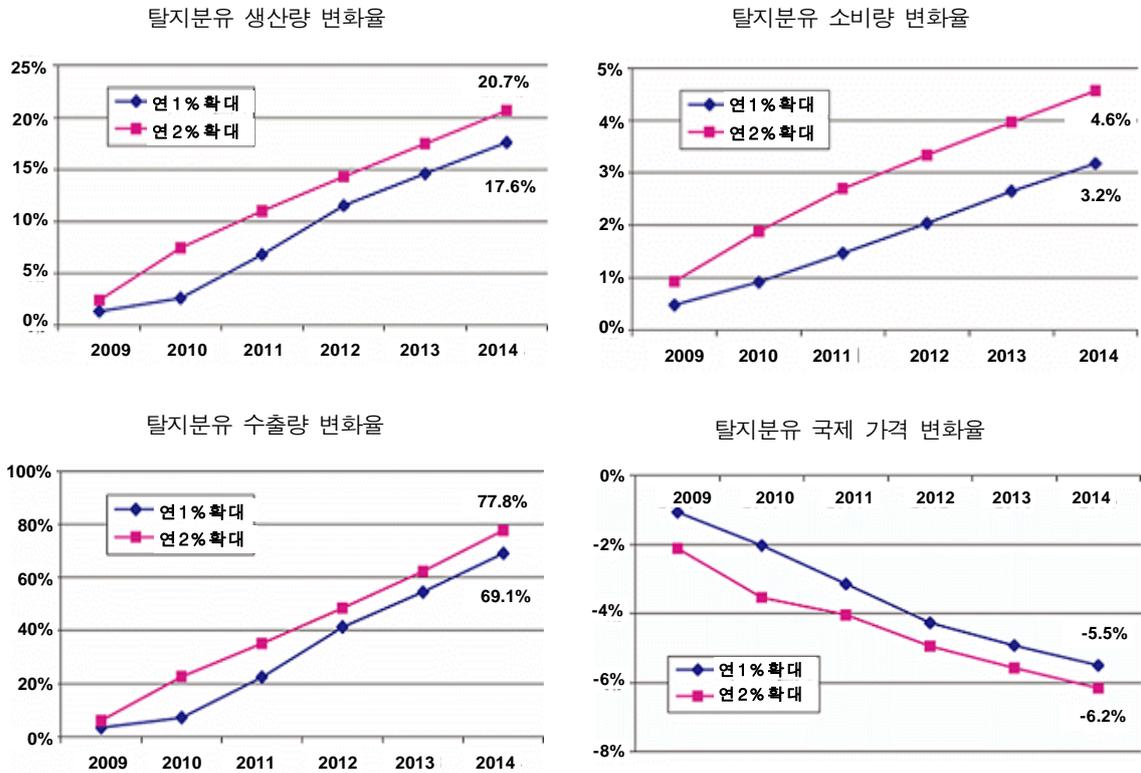
그림 6 연착륙 수단에 의한 버터 수급 전망
(2009-2014년간 현재시책 유지시 값=100)



탈지분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유 쿼터를 연간 1%씩 확대하는 경우와 연간 2%씩 확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원유쿼터가 향후 일정하게 변동한 경우에 예상되는 수치를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탈지분유 생산량은 버터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며, 2014년에는 각각 117.6과 120.7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수요량도 증가하지만 생산량 증가율보다는 작아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각각 169.1과 177.8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은 각각 94.5와 93.8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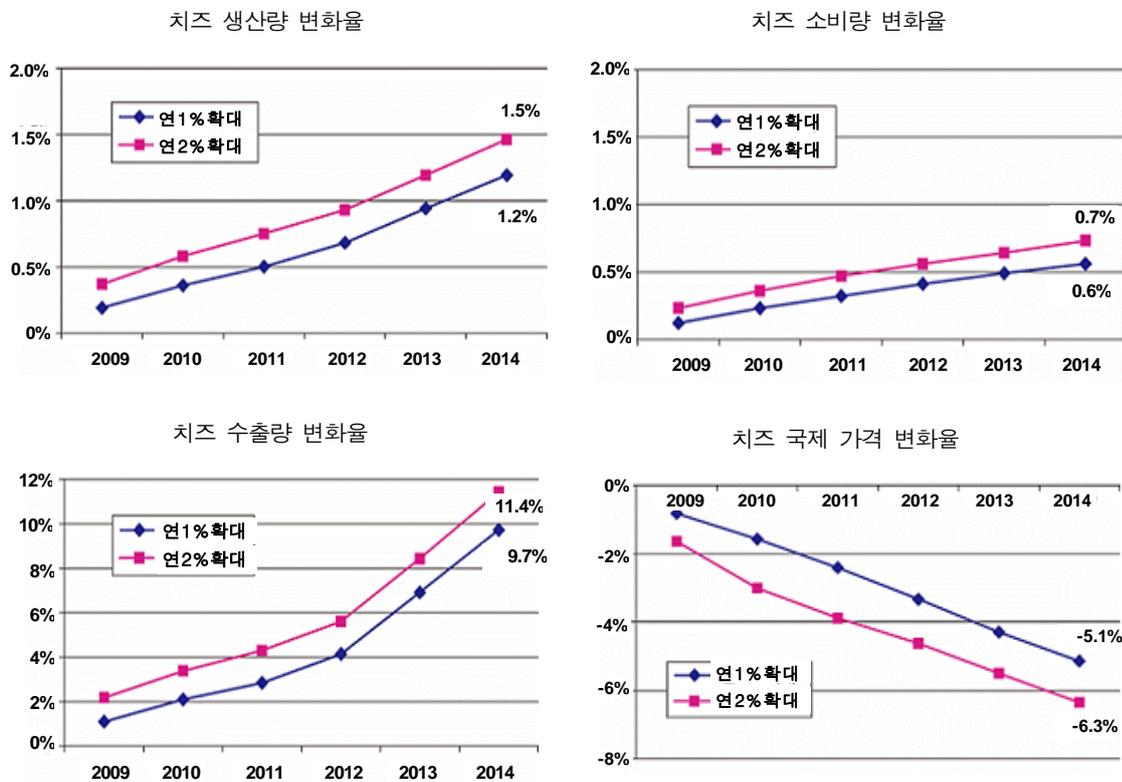
그림 7 연착륙 수단에 의한 탈지분유 수급 전망
(2009-2014년간 현재시책 유지시 값=100)



치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유쿼터를 연간 1%씩 확대하는 경우와 연간 2%씩 확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원유쿼터가 향후 일정하게 변동할 경우에 예상되는 수치를 100으로 하여 비교하면, 치즈생산량은 조금 증가하여 2014년에는 각각 101.2와 101.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수요량 성장은 생산량 성장보다 낮아 수출량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각각 109.7과 111.4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체다와 고다 등 세미하드치즈의 경우)은 각각 94.9과 93.7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연착륙 수단에 의한 치즈 수급 전망
(2009-2014년간 현재시책 유지시 값=100)



4. 맺음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5월 29일에 공표한 OECD-FAO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08-2017)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유제품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은 최근의 최고가격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평균을 웃도는 가격 수준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EU는 건전성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정책 재검토에 의해 우유 및 유제품 분야에 대해 약 30년간 계속된 원유쿼터 제도를 폐지한다는 커다란 정책의 전환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원유생산의 완전한 자유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원유쿼터 제도 폐지를 위해 2009년 이후 원유 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논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만일 EU 집행위원회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5년간 매년 1%씩 확대한다는 안이 채택되어 실행된다면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EU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은 틀림없이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수출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제품 수출량 증가 및 수출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유제품 수급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EU의 대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 운송이 비교적 간단한 역내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가맹국이나 지역에 원유 생산이 집중되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원유 생산이 감소하는 등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향후 사료가격이나 원유가격 동향 등 생산요소에 관한 불확실한 요소도 많다. EU의 새로운 대처가 역내 및 세계 우유 및 유제품 수급 안정으로 연결될지 그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08년 7월호 발췌정리

세계적인 유제품 수급안정이라는 관점에서 EU의 대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유 및 유제품 운송이 비교적 간단한 역내에서 생산성 높은 가맹국이나 지역으로의 원유 생산 집중 등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예상된다.